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자기의 불심을 키워주는 보리예요, 보리!

☞ 17면에서 계속

수고가 많으셨소, 더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서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소? 몸이 피곤하지?”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그 아팠던 게 ‘그냥 언제 그랬더냐? 내가 뭐, 언제 엉덩이가 아팠나?’ 하하하.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피곤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악하게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모든 건 주인공에 맡겨 놓고 그저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저 널리 내다볼 수 있는 평화로운 그 평등한 마음…. 우리 스님이나 스님 아닌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은 도둑대로 꼬리표 붙여서 생전 도둑 하라고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또 나쁜 사람도, 술만 먹는 사람도 평생을 술만 먹으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술을 먹게 된 동기, 뿌리를 캐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죠.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머니들이 가지시고 뾰죽뾰죽한 입으로 뾰죽뾰죽하게 말을 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지 알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도리요, 아버지의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들 빼놓고, 자식들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 번뇌 망상이 다, 육십이견(六十二見)이 다 공(空)한 까닭에 색(色)이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실상이고요. “망상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하는데 망상, 그 만 가지 망상이 다 오는 대로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불심을 키워 주는 바로 보리예요, 보리! 불심을 키워 줄 수 있는 보리! 그러니까 그 망상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망상이 없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으면 목석이게요? 목석이 무슨 부처를 이룹니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니 그 망상도 소중하죠. 아주 묘하죠.

그러니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한데 뭉쳐 녹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자비와 대승경지이며 그것을 이루어서 이 산하대지를 그냥 훌떡 집어삼킬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고, 마구니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그저 부처를 아무런 방편도 없이 막 때려 부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가 맞아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아, 그거를 홀딱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갖다 넣고는 그 물질만 없앴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패를 해 놓고 영가를 청하고 그러죠? 건덕지가 없으면 영가가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서 못 하니까 위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이 없으면 나 자신의 자성신(自性神)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보질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맏며느리나 맏아들은 일 년이면 열 번을 지내고, 열 몇 번을 지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질 않고 일 년에 많든지 적든지 세 번씩만 종합해서, 모든 조상들을 한데 합쳐서 세 번씩만 지내 드리면서 무슨 때면은 또 무슨 때대로 지내 드리고, 그거는 뭐, 백중 때나 또는 정월 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제사 많은 집들은 백중이나 정월은 빼놓고 세 번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찹쌀떡으로 세 둥치만 해 놓고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면 오히려 만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좀 더 느끼는 바가 있는 분들은 나물 세 가지 해 놓을 것도 없고 과일 세 가지 해 놓을 것도 없어요. 떡 세 켜면, 물 또는 향, 초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주 깨달은 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도 돼요. 그건 왜냐? 내 마음속에 촛불이 있고 향이 있고 떡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 떡이 있으니 그 뭐, 떡을 새삼스럽게 갖다가 놓고 보일 건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등하고 온 누리를 다 싸안을 수 있으리만큼 크다면, 그 조상들의 영령들도 다 문을 열어 놨으니까 거기에 들어서, 둘이 아닌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온 세상 게 내 자리고, 온 세상 게 내 거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뭘 차립니까. 그만큼 익었으면 그렇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너무 살기에 바쁜 세상에서 열 몇 번씩 이렇게 한다면 그 자식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고 그러니 많은 집들은 일 년에 세 번으로 아주 매기단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찹쌀로만이 떡 세 켜,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잘살면 큰 걸로 하고 또 돈이 없고 못살면 그저 한 조각이라도 하되, 한 조각을 셋으로 나누어서 놓으면 또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놓으셨다가 식구가 잡숫고, 또 떡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거 한 봉지 한 봉지 꺼내서 녹여서 후라이판에다가 해 가지고, 허허허, 남편이나 자식들이 좀 헛헛할 때는 고것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갖다가 주면 그것이 바로, 조상들 2세가 바로 그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먹어 주는 거는 2세가 먹어 주고, 냄새를 맡고 정성 들이고 하는 거는 다 2세가 들이는 까닭에 2세가 대신 먹는 거거든요. 그 정성의 마음은 바로 조상들이, 부처들이 다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의 인등을 켜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나라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 주인공에다가만 맡겨 놓고 한다면 삼계(三界)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참선입니다. 또는 내가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아주 진정코…, 아까 수박씨 얘기 했죠. 수박씨는 내 안에 수박씨가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 다 맡겨 놓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참 좌선이다 이거죠. “앞뒤 없는 피리처럼, 대피리처럼 안이나 바깥이나 다 그냥 그 어디에고 머무르지 않는다. 찰나찰나 돌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까, 앞뒤에서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머무르지 말라. 걸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좌선이다 이겁니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녹여라.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녹여라.
용광로에 넣듯이 근본 자리에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 부처니만큼 법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문수가 될 수 있고, 또는 움죽거릴 수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보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보현, 문수, 부처가 따로 없이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문수요, 그대로 바로 보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인가요? 아플 때는 약사가 돼 주고, 또 가난할 때는 관세음이 돼 주고, 또는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애쓸 때는 지장이 돼 주고, 이렇게 만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있고 만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시면서…,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안 좋으면 벌써 병원으로 가요. 그래 가지고 온통 속을 다 뒤져 보고 그러고는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다 쏠리거든요. 자기 중심은 인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껍데기만 살아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알맹이가 있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안에서 자기 알맹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들어가서 100%를 가지고 살아야 사람의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는 어디 가고, 남의 얘기만 듣고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뿌리가 솟아서 그냥 죽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하고 30%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지만 70%는 내가 완벽하게 거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겨 놓고 ‘내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야 몸도 건강하고 속에 있는 그 부하들도 공장들도 잘되는 거죠. 그래야 능률을 내고 그러죠.

지금 우리의 능률을 모두 꺼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모두 그냥 싸움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들이 모두 단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놓질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싸우고 크고 있는 거죠. 크나 작으나 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만 나무라기 이전에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하고 충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이 몸속에, 오장육부 안에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는 게 벌써 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얘깁니다. 공장이 부진하면 몸이 벌써 쇠약해지죠. 그런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그 공장이 능률을 내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모든 걸 거기에 놓는다. 둘째는, 위가 아프다고 그러면 위 공장을 리드해 나가야죠. 공장 직원들을 말입니다. 공장 직원들을 한마음으로 거기다 맡겨 놓으면 거기 위 공장에서는 “야! 사장님이 말이야, 우리도 글쎄, 같은 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아무렴. 사장님과 더불어 우리가 둘이 아닌데.” 하고선 그때에 능률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이건 네 거고 내 거고’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촌충이 한 마리라도 나 아닌 게 없어요. 내 배 속을 들여다보세요. 모습을 진드기로도 가지고 있고, 빈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죄 가지고 있는 게 자기지 뭐 딴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본다면 그게 더럽고 징그럽고 야단법석이죠. 내 오장육부에다 공장 직원으로다가 쓰면서도요. 그것이 바로 직원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가려니까, 자기가 그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습 모습이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일체 만법이 다 부처님 모습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마음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고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해 놓고도 그 말한 것이 이렇게, (물컵을 드시고) 물질처럼 그냥 이렇게 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걸 속이느라고 백 번 천 번을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감하고, 진짜 사랑을 알면서 도반으로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나가기를 진정코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와 세계와 전 우주와 더불어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해서 애를 쓰고 대책을 세우듯이, 그 모든 것을 허공에서도, 다른 데서도, 자력이나 광력을 이끌어서 전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 재료가 모자란다고 그냥 죽을 겁니까? 한마음이 무심으로써 무심도(無心道)의 중용은 어디서든지 끌어서 어디서든지 충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들은 겁이 나서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해야 저렇게 되지.” 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물건 다 사듯이, 내가 있으니깐 돈도 있는 거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한 주먹에 쥔다면 그때 가서는 참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가를 말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그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행해 보십시다.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